

# 12개팀 다학제 협진·AI '왓슨' 조력...최적의 암치료

## 암 바로 알기 대장암 진료

조선대병원 인공지능암센터  
다학제팀 진료회의의 보니

진단·수술법 등 한자리서 논의  
환자도 참석...명쾌한 답변도  
13종 암 치료 최신 정보 공유

지금까지는 암으로 진단되면 환자는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외과,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명의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야 했다. 다양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날 며칠에 걸쳐 수차례 예약하고 차례가 되면 병원을 찾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인공지능암센터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각종 암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한번 방문해서 지금까지의 진단, 치료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치료계획까지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는 질문하기 어려웠던 궁금한 부분들까지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

◇다학제팀의 실제 회의 진행 과정=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학제팀의 진료회의를 재현했다.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조선대병원 인공지능암센터 다학제팀이 대장암 환자의 치료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병원 1층에 위치한 인공지능암센터에 다학제팀 의료진이 모였다. 이날 다학제팀은 대장암 환자를 위한 것으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의 신청으로 대장암 다학제 진료회의가 열렸다.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모(58)씨를 진료하기 위해서다.

▲다학제팀의 구성(전문의): 대장암다학제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3주전에 우측 대장절제술을 받았습니. 수술 후 전신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 시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대장내시경사진은 어떤가요?  
▲소화기내과: 상행결장에 궤양을 동반한 덩어리가 관찰되고 있는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학제팀의 구성(내과): 내. 병리검사에서도 대

장암으로 진단됐고 병기결정을 위해 복부 CT를 촬영했는데 주변의 림프절 침윤이 관찰되어서 stage III로 생각되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조직소견은 어떤가요?  
▲다학제팀의 구성(방사선종양학과): 대장에서 발생한 샘암종이 맞고요, 근육층을 뚫고 장막까지 암세포가 침윤되어 있어서 T3에 해당하고, 총 20개의 림프절중에서 1개에 암세포침윤이 관찰되어서 N1에 해당해 병리학적으로는 stage IIIb입니다. 수술로 절제된 주변부에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아서 수술은 아주 깔끔하게 잘된 상태입니다.  
▲다학제팀의 구성(외과): 네. 감사합니다. 최종 진단은 대장암이고 병리학적으로 stage IIIb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발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항암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학제팀의 구성(종양내과): 네 그렇습니다. 림프절에 암세포침윤이 있는 stage IIIa이고 58세로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폴록스(FOLFOX)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왓슨'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학제팀의 구성(방사선종양학과): 보조항암치료 6개월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핵의학과: 동의합니다. 수술 전에는 다른 장기에 전이소견이 없었는데, 항암치료전에 PET-CT를 촬영해서 암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인공지능암센터 다학제팀

조선대병원 인공지능암센터는 현재 대장암, 위식도암, 두경부암, 유방암, 폐암, 간담췌암, 혈액암, 피부암, 부인암, 비뇨생식기암,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팀으로 총 12개 다학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570례 이상을 시행해 광주·전남에서 가장 풍부한 다학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2017년 9월부터는 미국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암전문가인 왓슨포온콜로지

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다학제팀 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미국 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공지능 왓슨포온콜로지는 치료와 관련된 반응율과 생존율, 부작용 등을 자세히 제공해 암 전문의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현율이 높은 대장암, 위암, 유방 등을 포함한 13개 암종에 대한 전문 치료의견을 다학제팀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

다.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5일 후 오전 9시가 비어있습니다.

▲다학제팀의 구성(내과): 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코디 선생님, 환자와 보호자분들 들어오시도록 해주세요.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다.

▲다학제팀의 구성(종양내과): 안녕하십니까. 수술 후에 몸 상태는 괜찮으시죠. 저희 병원에서 대장암치료를 하는 전문의들입니다.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입니다. 그리고 '왓슨'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왓슨'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왓슨'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학제팀의 구성(방사선종양학과): 보조항암치료 6개월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핵의학과: 동의합니다. 수술 전에는 다른 장기에 전이소견이 없었는데, 항암치료전에 PET-CT를 촬영해서 암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학제팀의 구성(종양내과): 네. 항암치료는 2박3

일 스케줄로 총 12번을 실시해 약 6개월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신경병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었고 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일반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항암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환자: 혹시 항암치료하면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요?  
▲다학제팀의 구성(종양내과): 대부분 환자들이 일반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금요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일요일에 퇴원하는 식으로 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몇 번 치료를 받아 보시고 저와 상의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환자: 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하 생략)

(정리=조선대병원 박지영 종양내과 교수)

▲다학제팀의 구성(방사선종양학과): 네. 항암치료는 2박3

일 스케줄로 총 12번을 실시해 약 6개월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신경병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었고 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일반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항암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환자: 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하 생략)

(정리=조선대병원 박지영 종양내과 교수)

▲다학제팀의 구성(방사선종양학과): 네. 항암치료는 2박3

## 베트남·몽골로...한의약 전도사 청년한방병원

현지 행사서 잇단 홍보 활동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베트남, 몽골 등 세계 각국에서 한의약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한의약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사흘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 미셸 전시장에서 열린 '2018 메디컬 코리아 인 몽골' 행사에 참여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행사는 '2018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연은 이 기간 동안 한의약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침, 부항 등을 현지인들



에게 전파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관

광공사 주관으로 열린 '2018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여해 한의약을 홍보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

## 애들 망막 태우는 레이저 포인터 조심하세요

어린이들 손에 들려준 레이저 포인터(laser pointer)가 자칫 시력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리스의 9살 소년이 레이저 포인터로 수차례 자신의 눈을 비추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학술지에 따르면 소년은 이 작은 기구로 자신의 눈을 쏘고 난 뒤 왼쪽 망막의 일부가 타버렸다. 이런 사실은 최근 소년이 시력에 이상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 병원을 찾은 뒤 밝혀졌다. 병원을 찾은 것은 관련된 일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아이를 진단한 의사들은 동공을 통해 눈 내의 구조물을 관찰하는 안저검사를 통해 아이의 왼쪽 눈에 큰 황반원공(macular hole)을 발견했다. 아이의 왼쪽 눈의

시력 측정치가 20/100으로 나타났고, 오른쪽 눈은 20/20이었다. 소년은 1년 전 아버지에게 노점에서 '그린 레이저 포인터'를 사주어 이를 자신의 눈에 여러 차례 비추는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의료진은 소년의 눈에 난 구멍의 크기가 커 수술은 하지 않고 일단 신중하게 관리하는 쪽을 택했다.

보고서는 레이저 포인터가 당국의 단속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나라의 보건당국이 손에 들고 쓰는 레이저 포인터에 관계된 시력의 해악을 경고하고 있지만, 더 많은 강력한 것을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레이저 파워 제한을 준수한다면 레이저 포인터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정신치료 상담 환자부담 최대 40%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정신과 문턱이 낮아진다. 우울증 등으로 상담받을 때 환자 본인이나 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0% 가까이 내려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 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를테면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 73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33% 적어진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 1400원에서 7700원으로 떨어진다. /연합뉴스

#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